

# 일 어

## 2006년 시행 외무고등고시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ワールドカップと国家のイメージについて論じなさい。(300字内外) (10점)

제 2 문. 다음 글을 일어로 옮기시오. (20점)

그는 프로의식이 강한 사람이다. 그렇다고 승부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다. 팬들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더 투철하다. 그가 지향하는 야구는 보는 사람을 사로잡는 야구다. 돈내고 야구장에 온 고객을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조다. 예컨대 선수 시절, 늘 한 치수 큰 헬멧을 쓰고 타석에 나왔다. 힘껏 헛스윙 할 때 헬멧이 홀렁 벗겨지도록 하기 위해서다. 팬들은 그 모습에 열광했다. 이는 프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.

그의 프로의식은 일상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. 자신의 직업을 서슴없이 ‘나가시마 시게오’ 라고 할 정도다. 일본의 국민적 영웅이 된 자신이 곧 천직이라는 자신감의 표시이기도 하다. 직업란엔 아무나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다. 배짱만으론 턱도 없다.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나는 노력과 자기관리가 있어야 가능하다. 그래야 진정한 프로다.

\* 나가시마 시게오(인명) : 長嶋茂雄

제 3 문.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.

(총 20점)

- 1) 鳳仙花が咲いている。道ばたの小さな空き地やゴミ捨て場のわきに咲く鳳仙花は、強い夏の光を浴びながらふしぎにみずみずしさを失わない。白、うすもも色、紅、紫、さまざまな花びらの奥に、小さなア리가かわりばんこにもぐりこんでいる。

「赤い鳳仙花 / お庭に咲いたよ / 灼けつく夏の日 / 暑さも知らずに…」ある歌手が歌った『鳳仙花』は朝鮮の民衆が歌い続けてきたものだ。初秋の風の音をきくような調べである。日本の植民地統治のころ、このかれんな歌はひそかに歌いつがれた。あの息苦しい時代には、こういう歌でさえ歌うのを抑えられたものです、と韓国の人はいう。

鳳仙花には、ツマクレンアイの名もある。海に入る前、その花でつめを染める風習は昔からあった。水の害を防ぐ、というまじないの意味があったらしいが、このまじないはやがて、少女たちの遊びになった。さすが、裏庭や背戸のわきにさりげなく咲く鳳仙花には、風情がある。この花は、よほど人々の歌心をそそるらしい。(15점)

- 2) 二十五歳になる娘に、親友の結婚式の招待状が来た。その日から娘は毎日「何を着て行こうかな」と、困ったようにうれしそうに言っている。「いっしょに選びに行って」と言うので、日曜日に出かけた。デパートにもブティックにも、あらゆるスタイルの服があふれている。(5점)

## 중앙인사위원회 출제 관리과장



중앙인사위원회  
CIVIL SERVICE COMMISSION

일 어

1 1